

현장 중심 역사교육 지원 강화

도교육청,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전문가 초청 교원 연수 등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역사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의 역사 흥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역사교육 지원 강화를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올해 역사교육 강화계획을 보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원)감과 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역사교육 강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사와 고학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가 눈에 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 자취와 항일 역사유적지 탐방에 나서는 국외 역사체험학교를 추진하고 동화농민혁명 유적지 현장체험 학습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역사체험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3차례의 전문가 초청 연수와 위산·군산·선유도 및 임실·순창·남원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강원, 광주, 세종과 공동 개발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과 관련, 중학교와 고등학교 2종을 개발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중 현장 검토본을 공개, 내년 2월 학교 현장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열정을 깨워라!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마스코트 초오르미가 대학 캠퍼스에 깜짝 등장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주시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전북대학교를 방문, 새학기를 맞아 활기를 찾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회 알리기에 나섰다.

교(원)감 자적연수에 '역사편' 과정을 개설하고 2018년부터는 순위명부

로 한 역사 소양 및 체험연수를 강화해 나간다.

작성 시 한국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자전거 시범학교 모집

전주시가 자전거 시범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자전거 통학로가 잘 갖춰진 중·고등학교 20곳을 모집해 자전거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오는 20일까지 전주교육지원청(중학교)과 전북교육청(고등학교)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 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답사를 거쳐 자전거 이용 통학생 비율이 높고, 통학로가 자전거 타기에 용이한 학교 등을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선정된 학교에 대해 자전거 거동도 정비와 자전거도로 안전펜스 설치 등 통학로 정비를 실시한다.

또 신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원, 정비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자전거 이동수리반을 통한 자전거 정비교육도 지원키로 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 빅데이터 분석기술 '비투엔'에 이전

김용 교수팀, 7000만원 받고... 안전, 학습, 의·치의학 분야 등에 응용 가능

전북대학교 김용 교수와 김수정 교수(문헌정보학과), 김진·오효정(대학원 기록관리학과)팀이 텍스트로 구성된 콘텐츠의 내용 분석을 통해 중요 정보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기업에 이전,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

김 교수팀은 '내용분석기반콘텐츠 자동분류기술'을 데이터 처리 분야 전문 기업인 '비투엔'에 7,000만원을 받고 기술이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12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정보공유플랫폼 구축사업과 교육부의 대학중점연구소(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김용 교수팀은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 역시 이러한 융합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노하우와

관련된 것. 최근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 이전된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를 패시 기반으로 분류하기 위한 분류체계 구축, 노이즈와 텍스트 콘텐츠를 자동 수집하고 필터링해 내용을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분류 기술 등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분류해 지능형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부터 지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회적 위험과 재난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변환해 범국가적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학 분야와 접목해 각종 의료 연구 동향이나 최신 기술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 전북대 연구팀은 최근 이 기술을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컴퓨터공학, 기록관리학과 및 의·치의학 분야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의료정보 융·복합연구소'를 설립하여 대용량의 의료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용 교수팀은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술은 국가 재난 예측, 의·치의학 분야, 사회적 이슈 분석 등 다양한 곳과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준비' 특강

전주시, '3월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에서

전주시가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ICT(정보통신기술)산업과 기타산업간 융합 발전으로 전 세계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서문산성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4차 산업혁명 특강을 진행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과 이후 이어지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를 뜻하는 말로,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기술혁신을 이루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서문산성 원장은 이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준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3D 프린팅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등 정부와 전주시의 성장동력 분야의 4차 산업혁명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관련 트렌드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방안, 전주시의 4차 산업 대응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서문 원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으며,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기술의 파급력이 국내·외 전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무원들의 전략적 대응과 과제발굴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초등 수영안전교육, 14개 시군으로 '확대'

올해부터 초등 3~4학년 대상으로 하는 수영 안전교육이 14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된다.

7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수영기능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초등 3~4학년 수영안전교육을 14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군산, 익산과 고창교육지원청 등 3곳에서 시범 실시해 왔

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 단위로 수영안전교육을 자체로 수립해 안전 수영 4시간, 수영방법 6시간 등 총 10시간의 수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3월 수상안전교육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담임교사가 반드시 수영장에 입장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점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